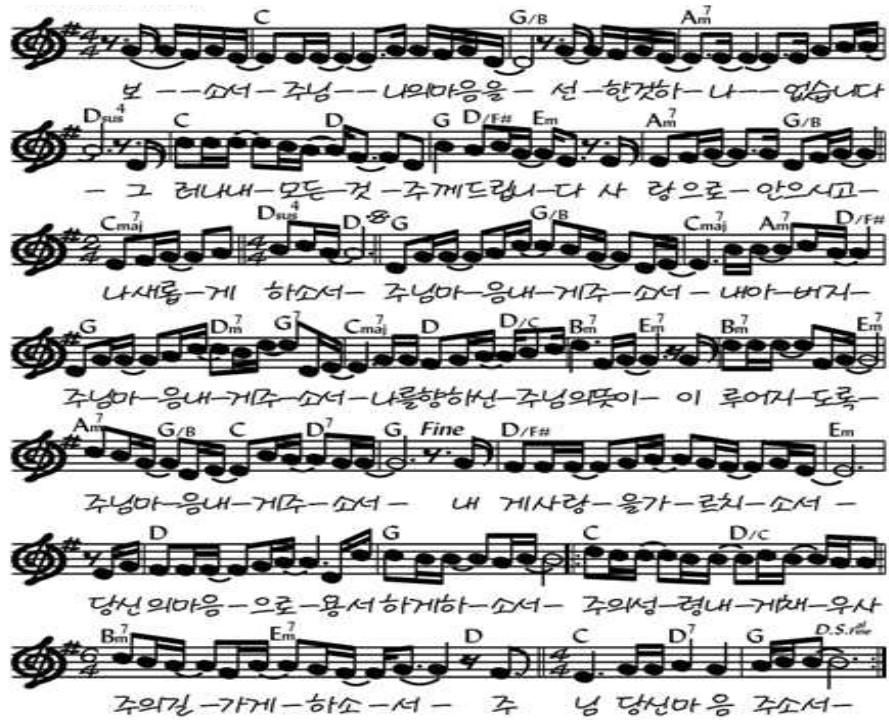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10월 1주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양산중앙교회
www.yangsanjungang.or.kr

신앙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족 모두가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QR 코드로 함께하세요)



말씀읽기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 사도행전 3:1-10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인도자가 내용을 읽습니다]

제목: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말씀듣기

성전 미문은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따라서 걸인들이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본문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의해 옮겨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었는데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제 구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적인 동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고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아야 할 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도 기도하기 위해 늘 성전 미문을 지나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문에는 본문의 주인공이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다가 갑자기 그를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지나쳤던 사람들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나누기

[아래의 질문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 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②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기도제목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 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②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